



宣教的 側面에서 본 改革主義神學

—韓國을 中心하여—

오 병 세 · 정 흥 권

〈목 차〉

序 言

I. 正統과 非正統

- (1) 칼빈주의 基本原理
- (2) 非正統의 神學

II. 神學的 論爭과 對比

- (1) 한국교회의 保守主義와 自由主義
- (2) 神學論爭의 歷史의 背景
- (3) 保守의 自由의 對比

III. 韓國에 있어서 改革主義 宣敎

- (1) 韓國教會의 成長과 復興
- (2) 韓國教會의 現況
 - (가) 敎派別 敎勢
 - (나) 敎派別 敎育機關
 - (다) 出版 및 文化
 - (라) 醫療宣敎
 - (마) 特殊宣敎

IV. 宣敎의 原理와 提言

(1) 宣敎의 성경적 근거

- (가) 하나님 사역인 宣敎
- (나) 예수 그리스도와 선교
- (다) 구약과 宣敎
- (라) 사도 바울과 선교

(2) 선교적 과업

- (가) 선교적 과업의 性質
- (나) 선교과업을 위한 二重의인 命令
- (다) 선교과업을 위한 위탁의 개요

(3) 宣敎의 目的

(4) 선교의 방법

- (가) 선교전략
- (나) The Nevius Method
- (다) 宣敎의인 使命遂行의 方法들

(5) 改革主義 宣敎에 對한 提言

結 語

序 言

개혁주의 학습원

韓國에 福音이 傳播된지 一百年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 基督教가 韓國初期의 그것과는 그 樣相이 많이 變貌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인 것이다.

특히 現代의 自由主義 思想이 世界를 風靡한 趨勢에 便乘하여 韓國 基督教에도 自由主義의 左傾神學이 擡頭되면서 基督教가 宗教的 本質에서 벗어나 精神的 運動화된, 이론바 急進의 社會福音主義運動으로 膨脹되어 가는 感이 없지않다 할 것이다.

이로 因하여 基督教의 社會參與問題가 提起되면서 이에 對한 見解도 各樣各色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특히 政治的인 面으로 物議를 빚는 事態를 빚게 되고 基督教가 政治를 좌우 해야만 하는 宗教만인것 같은 印象을 질게 하였다고 본다.

筆者들은 本稿에서 基督教 本質에 挑戰하여 온 歷史를 觀察하고 本質的인 基督教와 이에 대



한 非正統인 自由主義에서 追求하는 思想과를 對比하여 참되시고 삭이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人間의 罪性으로 困한 온갖 非理와 不條理를 不絶히 改革해 나가고자 하는 改革主義的 側面에서 韓國의 宣敎에 對한 過去와 現實을 考察함으로써 새로운 使命意識을 鼓吹 하고자 하는 바이다.

1. 正統과 非正統

基督敎는 말씀의 宗教이며 啓示의 宗教이다.

基督敎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聖經이 없다면 基督敎는 成立될 수 없을 것이다. 聖經이 하나님의 直接的인 啓示의 말씀이라는 것을 否定하다면 基督敎는 宗教로서 그 命脈을 維持해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基督敎에서 正統과 非正統의 分岐點은 聖經을 하나님이 啓示하신 말씀으로 믿는 與否에 있는 것이다. 聖經을 하나님이 啓示한 말씀이라고 믿는 正統的 信仰觀에 立脚하여 聖經을 理論的 體系로써 組織化한 가장 論理的인 原理를 確立한 사람이 칼빈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基督敎에서 改革主義를 標榜할 때 그것은 바로 칼빈주의를 뜻한다 할 것이며 칼빈주의는 端的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絶對的 主權을 그 基本原理로 한 思想體系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啓示에서 나온 包括的이고 全體的이고 根本的인 思想體系인 이 칼빈주의는 基督敎 信仰의 本質的 純粹性和 信仰生活의 純粹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榮光을 爲해서 살도록 要求하고 있다. 本章에서는 먼저 칼빈주의에 對하여 李根三 教授가 整理한 바¹⁾를 기초로 하여 說明한 後 이에 挑戰하는 非正統的 神學의 諸學說을 概括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칼빈주의 基本原理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中心한 思想이다. 칼빈주의는 人間의 悔改나 稱義로 出發하지 않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 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롬11:36)라는 말씀을 自己의 思想中心에 두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最高의 立法者이시며 自然界와 道德界와 文化에 있어서 絶對的 支配權을 行使하신다는 “하나님의 絶對적 주권”이 그 基本原理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現象의 背後에는 하나님의 攝理하심이 있는 것임을 確信하게 되는 것이다.

聖經을 體系化한 칼빈주의에서 몇가지의 基本的 意義를 생각해 보면 ①主權者 하나님은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엄격히 구별된다. ②종교는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간의 언약 관계이다. ③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적 비참함 ④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구속 ⑤성령의 인도와 성화 등이라 할 것이다. 完全 豫定을 믿으며 神論, 人間論, 救援論, 敎會論의 面에 있어서 聖經에 啓示된 하나님의 계획을 理解하고자 하는 칼빈주의는 사실상 어떤 새로운 宗教改革 神學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使徒들의 神學思想을 追求하며 敎父들 특히 어거스틴의 神學

1) 李根三 著, 칼빈 칼빈주의, 고신대 출판부, 부산, 1976, pp.87~118.



은 無視되지 않고 중요한 敎理들을 더욱 分明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부들이 가졌던 個人的인 非聖經的인 概念을 칼빈은 따르려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칼빈주의자들도 성경이 어떻게 믿고 행할 것을 가르친 대로 밝히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심지어 칼빈에게도 盲目的으로 따르려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가는 곳에 가며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자 하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의 기본태도라 할 것이다.

칼빈주의 神學의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은 칼빈주의 五大敎理라 할 것이다. 벨기에 신앙고백(Belgic Confession of Faith)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분담(Heidelberg Catechism)에 抗議한 알미니안파의 主張인 사람의 구원이 全的으로 人間 自身에게 있다고 하고 救援의 信仰은 人間 自身의 하는 일에 있다는 內容으로 한 五個項目에 대하여 檢討한 Dordrecht會議에서 이는 聖經에 벗어난 것임을 밝히뿐만 아니라 알미니안파에서 提起한 다섯가지 抗議에 對하여 칼빈주의에 立脚한 定說을 確立하게 된 것이 칼빈주의 五大敎理이다.

그것은 ①인간의 全的腐敗 또는 全的無能力(Total Depravity or Total Inability) ②無條件的 選擇(unconditional Election) ③ 制限된 救贖(Particular Redemption or Limited Atonement) ④不可抗力的 恩惠 또는 神령의 有效한 부름(The Irresistible Grace or the Efficacious Call of the Spirit) ⑤聖徒의 忍耐 또는 窮極的 救援(The Preseverance of the Saints or the Security of Believers)등인 것이다. 豫定이 칼빈주의 中心敎理인 것 같이 말하기 쉽지만 以上에서 살펴보면 豫定論은 칼빈주의 神體系에 있어서 하나의 要點에 不遇하며 어디까지나 그 中心은 하나님의 存在에 관한 思想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²⁾ 하나님은 誤謬가 없는 完全하신 案内者이시며 無誤謬의 聖經은 사람을 모든 眞理의 純潔로 案内하는 하나님의 方便이라고 믿는 칼빈주의 者의 모든 生活과 그 領域은 聖經의 指導를 따라 生活할 것을 原理 삼는다.

救援에 관해서는 人間에게 돌아 갈 영광, 심지어는 反映된 榮光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타락한 人間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救援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意志를 가지게 하신 것이다.

2. 非正統의 神學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人間이 犯罪 墮落한 후부터 하나님에 對하여, 또는 하나님의 啓示한 말씀에 대하여 사탄의 使敝를 받은 人間의 挑戰은 不絶하였다. 神을 否定하는 立場에 선 不信者들은 勿論이고 教會에 나와 禮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聖經을 全的인 하나님의 啓示의 말씀임을 믿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人間 理性에 바탕을 두고 聖經을 난도질하여 合理的인 方法으로 解釋하려는 一聯의 神學者들은 하나님과 對決하는 者들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聖經에 反旗를 들게 된 根本的인 神學的 論爭의 爭點을 예수 그리스도의 人性만을 받아 들이느냐 아니면 神性만을 받아 들이느냐, 또는 人性과 神性を 同時에 가지신, 罪로 墮落한

2) 上同 p. 92.



人間을 救援하시기 위한 救主로 받아 들이느냐 하는 點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歷史性 즉 人性만을 主張하거나, 啓示性 즉 神性만을 내세운 것에 起因한다 할 것이다.”

保守主義와 自由主義의 論爭에 對한 歷史的인 考察과 두 潮流의 對比點에 關하여는 다음 篇章을 設定하여 論述하기로 하고 本章에서는 非正統的 神學에 對하여 一般論的인, 極히 概括的으로 敘述해 두고자 한다.

初代教會 以後 中世에 이르기까지 이미 非正統的 神學은 活潑히 展開되어 왔고 또 그때 그때마다 이들은 이단으로 낙인 찍히 轉落하고 받았다. Arius는 아버지인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처음부터 아들이 있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없다가 있게 創造함을 받았다는 것을 主張하여 그리스도의 神性을 否定하였으며, 그 後 Nestorius도 역시 그리스도의 神性을 否定하였던 것이다.³⁾ 한편 Apollinarius는 그리스도의 人性을 拒否하였는데 Eutichus 또한 같은 見解는 가졌던 바 이들 모두는 異端으로 排斥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5세기경의 Pelagius는 原罪論을 否定하였는데 역시 容納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中世에 있어서 教會는 로마 카톨릭교의 腐敗와 墮落으로 말미암아 宗教 改革을 招來하게 하였던 것이다. 中世 教會의 聖經에 對한 無知에서 覺醒한 教會는 教理的인 確立이 이루어져 감에 따라 여러 뛰어난 信仰告白書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 敬虔主義 運動이 告白主義에 對한 反발로 擡頭되면서 教理的 基礎가 瓦解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세기에 들어와서는 Hegel의 歷史主義에 立脚한 神學과 Schleiermacher의 主觀主義的 神學이 膨脹하였으며 “예수傳 神學”이라고 불려질 만큼 歷史的인 예수의 研究가 활발하였으며 A. Ritschl의 道德的 價値의 神學이 勢力을 떨쳤으며 聖經高等批評이 나타나 注目을 끌게 하였다.

20세기, A. Schweitzer의 “歷史的 예수에 관한 研究”에기 비롯한 神學의 焦點은 歷史(Historie)에서 참 歷史(Geschichte)로 變位함에 따라 Karl Barth와 Rudolf Bultmann이 나타나 神學界에 새로운 學說들을 產出시켰다.

Karl Barth의 로마공 註釋에서 시작하여 Emil Brunner의 危機神學으로 번져나간 新正統主義 神學의 불길은 잇달아 말성한 많은 神學 思潮의 母體가 되었다 할 것이다.

Barth神學의 基本한 認證들은 ①人間의 主觀的 經驗을 眞理의 標準으로 삼으며 ②하나님의 自然啓示의 否定 ③人性을 가지신 예수의 受辱과 普通 救援說에 對한 애매한 態度 등이라 하겠다.

Rudolf Bultmann은 그의 著書 “History of the Synoptic Tradition”에서 樣式 批評을 채택하고 1941년에 발표한 “非神話論”에서 新約聖經의 非神話的 解釋을 主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칸트로부터 받은 神學的 遺産을 밑천으로 삼고 타이데거 實存主義 哲學과 결합해서 基督教 神

3) 金義煥 박사 著, 挑戰받은 保守神學, 曙光文化社 刊, 서울. 1971. p.12참조.

4) 김 의환 박사 著, 교회사, 세종문화사 刊, 서울. 1975. p105.



뜻은 現代人의 허영심에 맞도록 개조한 左傾的 神學者⁵⁾일 뿐이다.

Dietrich Bonhoeffer에게서 發端된 世俗化 神學은 John Robinson의 “Honest to God” Harvey Cox의 “The Secular City”등을 產出시켰으며 無宗教的 基督敎을 提唱했다.

이들은 이 세상 문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관심이어야 한다고 하며, 敎會와 世界의 區別을 撤廢하며 超自然主義를 拒否한다. 世俗化 神學은 垂直的인 面을 外面하고 水平的인 面에 치우쳤으면, 成熟한 世界에서는 參與를 통한 社會改革만이 敎會의 使命이라는 그릇된 見解를 갖고 있는 것이다.

Paul Tillich는 神의 개념을 “窮極的 關心”으로 表現했다. 그는 聖經이 啓示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否定하며, 그의 神論은 聖經 敎理와는 無關한 哲學的 觀念論일 따름이다. Tillich의 思想的 背景에는 Schweitzer와 Bultmann이 자리잡고 있음을 스스로 承認하고 있다. 實存 哲學에 根據를 둔 神學體系는 基督敎가 絕對宗教임을 否定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拒否한다. “Tillich의 思想體系는 全體的으로 볼 때 基督敎의 福音과는 相馳된다.”⁶⁾고 한 K. Hamilton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부 망령된 神學者들이 나타나서 神의 죽음을 宣稱하였으니 Paul Van Buren과 Thomas J. J. Altizer로 代表되는 그들은 現代 神學者들이 할 일은 이미 죽은 과거의 遺産的인 神觀念을 배장하는 일이라고 主張하였다.

Altizer는 兩極一致論을 주장하며 Van Buren은 言語分析學을 通하여 神概念의 無意味性을 主張하였다.

이들의 根本的인 誤謬는 金義煥 敎授가 指摘한 바대로⁷⁾ 그들의 神學이 世俗的 現代 知性人들을 爲한 宣敎的 動機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基督敎의 焦點은 어디까지나 聖經에 있으며 現代 宣敎에서 問題가 되는 것이 福音에 있는 것이 아니고 人間 自體에 있음을 忘却한데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現代 自由主義 모든 神學者들이 罪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人間들에게 福音으로써 悔改하게 하여 重生하도록 合理化시킨 福音으로 改造하러 하였다 할 것이다. 聖經은 一點一劃도 잘못이 없으며 時代가 變遷하고 世上이 바뀐다 하여도 福音을 改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問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으며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다할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으며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다면 그러한 믿음에 따라 생활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개혁주의가, 神學界가 혼란한 이배 얼마나 切實히 要請되고 있는가를 切感하게 된다 하겠다.

5) 박 아론 著, 현대신학은 어디로, p. 15.

6) K. Hamilton, The System and the Gospel, A Critique of Paul Tillich, Eerdmans, 1963, p. 227.

7) 金 義煥 博士 著, 挑戰받은 保守神學, 曙光文化社 刊, 서울. 1971, p48.



Ⅱ. 神學的 論爭과 對比

1. 한국교회의 保守主義와 自由主義

韓國改新教은 그 傳來 때부터 保守神學을 바탕으로 해서 成長해 왔다.⁸⁾ 韓國教會 들의 전도에 있어서 長老教가 主導的 位置에 놓여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韓國의 長老教는 美領 宣教師를 받아 이들의 影響力아래 敎會 지도자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老會와 總會가 組織되었으므로 美國教會의 變化에 매우 鏡放하였다.

韓國教會에 있어서 初期에 福音을 傳한 美國人 宣教師들 모두가 保守主義 信仰을 가진 人物들이어서 韓國教會는 保守主義의인 基礎 위에서 成長해 갔던 것이다.⁹⁾

1896년 美國 북장로교 신교사들에 의하여 채택된 神學敎育의 理念은 기독교의 根本眞理와 條條를 칠지히 가르칠 것을 主眼點으로 하고있어 어느정도 保守主義 터전위에 敎會가 成長할 수 있었던 가른 端의으로 잘 보여주는 事實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聖經的 保守信仰이 위축을 받을 때 信仰의 실계를 지키기 위하여 神學校가 中斷되는 것도 宣敎事業을 포기하는 것도 不辭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으니 自由主義 運動이 곧 그것이다. 이에 많은 原因이 있겠으나 가장 重要한 것은 많은 宣敎師들을 파송하고 있는 美國北長老教 自體가 左傾하였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또한 保守主義 神學의 요람이던 프린스턴 神學이 左傾하게되자 거기서 修學하고 온 많은 敎界指導者들의 영향도 컸던 것이라 하겠다. 이에 더욱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을 中心으로 조선 신학교가 설립하게 되자 드디어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서 滿開하게 되었다.

監理教會는 처음부터 長老教와는 달리 開放主義를 採擇했다. 民族의 受侮를 當하는 日政 때 政府의 神社參拜 解釋을 받아들이는 反應面에 있어서 保守 自由의 兩陣營의 神學的 立場이 적지않게 作用했음을 石過할 수 없다. 勿論 一律的인 判斷을 내리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 問題에 있어서 美國北長老教 宣敎部는 적극적으로 反對하여 신교사들을 本國으로 撤收시키기까지 하는 反面 캐나다 신교부는 “大勢가 기울어지는대로 새상의 風潮에 따라하라”는 宣敎方針을 결정한 것이라든지, 평양신학교는 이 問題로 인하여 自進 無期 休校에 들어가는 동안 自由主義 神學者들은 神社參拜와 相關없이 서울에 朝鮮神學院을 設立한 것¹⁰⁾ 등은 對照를 이루는 例라 할 것이다.

解放이 되자 日帝末期 敎權을 가졌던 多數의 朝語神學系統의 敎會 指導者들은 1946년 조선신

8) 장 하배, 한국장로교 신학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통권134호, p. 21.

9) 마포산일 박사는 기년 기년 연길 가운데 “나는 사도 박용이 결심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외에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던”고 하였다(김 양선,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 p. 173).

10) 金 義煥 博士 著, 前掲書, p. 75.



학교를 總會直轄 神學校로 탄생케되자 日帝의 神社參拜 反對運動으로 獄에 갇혔다가 出獄한 주의 종들과 亡命했던 教會指導者들이 뜻을 같이 하여 保守神學을 세워야 할 必要性을 切感하게 되었으므로 故 朱 南善, 故 韓 相東 牧師등이 부산에서 「高麗神學校」를 設立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南韓에서 兩神學校의 存在는 처음부터 長老教 分裂의 要素를 內包한 것임을 뜻하며 따라서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出現은 必然的인 歷史的 產物이라 할 것이다.

韓國 長老教會에서 神學的 論爭의 또 다른 하나의 실마리는 W·C·C.에 依한 自由主義的 에큐메니칼 運動에 관련된 問題의 惹起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忠實하며 경건 運動을 展開한 教會指導者들은 在經會와 일치한 悔改로써 상처받은 教會의 再建을 이룩하려 했으나 當時의 총회는 이들을 包容할 수 있는 경건의 能力을 喪失해서 이들을 축출하게 되므로서 高神側 教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高神側은 처음부터 칼빈주의 路線을 선명하게 내세워 改革主義 神學과 信仰의 순건을 理念과 生活의 原理로 삼았던 것이다.

(2) 神學論爭의 歷史的 背景

現在의 神學的 論爭을 살피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保守正統神學의 根幹이 되고있는 歷史的 칼빈주의(Historical Calvinism)에 對하여 理解를 分明히 해야 할 것이다.

16세기 宗教改革者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知識과 올바른 人間生活에 대한 敎訓을 성경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고 해석하였다. 그는 信仰과 生活이 二元的이 아니고 一元的 結合임을 認識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면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基本原理로 묶어 統一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처음부터 신앙체계이면서 동시에 生活의 諸局面을 꿰뚫는 신앙에 입각한 생활철학의 가능성을 示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啓示가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17세기의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의 活動을 신앙생활로 보았고 따라서 신앙의 체계면을 강조했다. 서구 각국에 칼빈과 교회가 있었고 이들의 신앙과 생활은 특별히 루터파 교회와 신앙체계와 생활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처음의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란 말은 “루터파”에 對하는 概念이었다.

이것이 화란에서 발생한 알미니안 주의를 排除하면서 “역사적”이란 수식어를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17—18세기에는 인간의 自由意志 活動 可能性을 認定하는 알미니안 주의에 대한 概念으로 칼빈주의란 말이 사용되었다. 이 역사적 칼빈주의 혹은 역사적 개혁주의는 당시의 人本主義的 傾向을 反對하였으며 保守 正統性을 堅持해 나갔던 것이다. 이것이 19세기에 접어들자 自由主義化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19세기 화란에서 發展된 思想體系로서의 칼빈주의는 Abraham Kuyper, Herman Pavinck 그리고 20세기 초 Hermann Dooyeweerd의 선으로 이어져 20세기 초 신칼빈주의 또는 암스텔담 학파로 불리어졌다. 모마 카톨릭교 내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시도한 것처럼 Kuyper, Dooyeweerd는 人間의 全生活 領域을 다루는 廣大한 기독교 사상체계를 構築하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는 역사적 칼빈주의를 버리지 않

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기독교 사상계계를 세우리하는 것이다.

신 개혁주의적 경향에 서있는 화란 칼빈주의 학자들과 교회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發達에 대항하여 생활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를 옹호하고 啓示를 唯一한 神知識과 인간 지식의 根據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 정통신앙을 固守했다. 미국에서는 장로교회의 일부 학자들 즉 Archibald Alexander, Charles Hodge, Benjamin B. Warfield, J. Gresham Machen 신으로 이어지는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정통 개혁주의 원리에 立脚한 正統信仰을 保守하기 위해 20세기 초 자유주의 혹은 現代主義 신학과 對決하였다. 이렇게 살펴 볼 때 역사적 개혁주의 혹은 역사적 칼빈주의는 정통 보수교회의 신앙과 생활의 外形的 原理이며, 이러한 教會들은 19세기 이후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나서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기독교의 正統的 歷史的 信仰을 파괴하는 자유신학 및 인본적 신앙생활의 교회들에 對抗하여 온 것이다.

서구의 19세기의 계몽사상의 擡頭와 과학의 發達은 客觀的 理性的 判斷을 중시하는 合理主義의 경향을 갖게 되어 인간의 죄를 지적하며 救援과 來世를 약속하는 정통주의 신학을 외면하게 되고 人間理性을 예찬하는 나관주의적인 현대주의 神學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통적 신학자들은 합리주의에 깃들인 성경의 權威를 되찾고 無視당한 기독교의 根本敎理를 確立하리라는 용지임을 보였다. 그 代表的인 例로 1895년 나이아가라에서 모인 查經會에서 보수주의 神學者들은 기독교의 다섯가지 근본교리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①성경의 무오성 ②동정녀 탄생 ③대수적 죽은 ④개립에 관한 것 등이었다. 이들이 이 교리들을 기독교의 근본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근본주의란 말이 붙게 된 것이다.¹¹⁾ 이러한 근본주의 운동은 20세기 초엽 역사적 상황에 對한 產物이기 때문에 몇가지 缺陷을 내포하고 있었다. 근본주의 다섯가지 基本敎理는 그 당시의 자유주의 신학과 더불어 싸우기에는 충분했는지 모르나 偏狹하다는 評을 받기 어려웠다. 만약 근본주의 운동이 敎理的 縮小主義에서 곧 脫皮하여 보다 더 폭넓은 신학적 비전을 가졌더라면 20세기 초반에 이미 기울어졌던 자유주의 신학의 뒤를 이어 新正統이 일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근본주의가 神學의 主導權을 신정통주의에게 빼앗기게 된 것은 근본주의 신학자체의 신학적 貧血症 때문이었다 하겠다.¹²⁾

또 다른 한가지 근본주의의 缺陷을 들면 否定的 思考方式이라 하겠다.¹³⁾ 이 자유주의 神學에 대한 대한 否定性이 하나의 體質化되었으려 이 부정주의는 方法論的 偏狹主義가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전합들을 내포한 근본주의는 자유주의 退潮와 함께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되고, 根本主

11) 根本主義라고 처음으로 命名한 사람은 침례교 機關紙 「The Watchman Examine」의 편집인 Curtis Kee Lows였다.

12) Carl, F H. Henry, *Evangelical Responsibility in Contemporary Theology*. p. 36

13) *Ibid.*, pp. 42~43.



義 결함을 대폭 수정하여 新福音主義가 成立하게 된 것이다. 근본주의 운동은 중요한 失手를 하였다. 그 실수 때문에 이 운동은 하나의 思考方式으로 변하고 만 것이다. 유럽 내륙의 개혁주의자들이나 영국의 非國教派와는 달리 근본주의자들은 저들의 確信과 教會의 古典的 信條를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리하여 現代主義가 무너졌을 때 근본주의 운동은 무표정은 군내처럼 되어 버렸다. 남은 것은 根本主義的인 思考方式밖에 없었고 이 사고방식이 신통주의의 커다란 위험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根本主義의 결함을 補充하려고 하는 新福音主義의 노력은 ①학적수준의 향상 ②복음의 사회적용 ③보수신학의 변종 ④교회 연합운동 등에서 刮目할만한 발전과 同時에 問題性을惹起시키면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신복음주의는 첫째로 성경관에 있어서 근본주의가 밀어온 축자영감설에 同意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다.¹⁴⁾ 그리고 유신적인 진화론을 주저없이 따름으로 과학적인 결론앞에 성경적 창조설을 쉽사리 던져 버리고 만다.

예를 들면 E. J. Carnell은 化石學, 地質學, 進化論의 결론을 받아들여서 마치 오늘의 進化過程 自體도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카아넬은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여 섭리과정까지 창조과정으로 생각하고 말았다. 창조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화과정은 오히려 섭리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⁵⁾ 둘째로 신 복음주의의 교회관은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과 다르다. 칼빈과 루터는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지 않고, 聖禮가 순수하게 집행되지 않으며, 말씀에 의한 勸懲없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떠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유주의자들 보다는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더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카아넬은 주권을 잡은 자유주의자들의 밑에서라도 그때로 그 교회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루터나 칼빈이 자유주의보다 더 기독교적인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했으며 신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의 목표를 非福音主義的 教會 즉 자유주의자들에게 두기 있는 한 개혁자들과 같은 宗教觀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복음주의는 복음적 교리를 그대로 믿는자들만의 도임을 교회로 보고 있으나, 신복음주의는 복음적 교리를 그대로 믿지 않는 가리 자리들 교회에서 용납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 교회를 주관하는 현실 속에서도 聖徒들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셋째로 이들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非基督敎的인 要素에 是非曲直을 따지려 하지 않고 肯定一邊倒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미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적극적인 선교활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독교가 아닌 자유주의 신학을 庇護하고 거기에 접근하므로 한국교회의 左傾의 加速化에 한 要因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다.

14) 金義煥 博士 著, 前掲書, p.121.

15) *Ibid.*, p.121.



선교 백년을 지나는데 이땅에는 지금까지 미치지 못한 모든 신학사조들이 치켜섰고 영향을 미쳤으며 그 복합작용으로 장래를 이끌고 가고 있다. 복음주의적 선교사들이 기초를 놓았고 신학의 영향을 입었으며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을 거치는 가운데 개혁주의의 신앙은 한국적 상황에서 구체화되어 갔으나, 지금은 신복음주의의 음성적 庇護아래 자유주의가 본래의 보수 신앙의 풍토에 근거를 더욱 깊이 마련해가는 현상이다.

歷史의 進行과 함께 하나님의 主權은 더욱 分明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하나님의 주권을 汚損되게 한 人間들의 理性과 思想들은 수없이 明滅되어 갔지만 歷史의 칼빈주의인 改革主義는 그 많은 挑戰을 만오던시도 百戰百勝과 같이 乘勝長驅하여 왔음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 할 것이다.

(3) 保守와 自由의 對比

지금까지 제 I장과 II장에 걸쳐 保守主義와 自由主義의 內容과 生感에 있어서 歷史的인 背景등을 考察하였다. 本 章에서는 以上을 整理하여 簡略하게 그것들을 對比해 보고자 한다.

保守主義는 하나의 傾向이며 改革主義는 正統의 神學에 立脚한 思想體系라 할 수 있는 바 國 名稱만이 다른 뿐 모두가 歷史的인 칼빈주의를 指稱한다 할 수 있으며 自由主義라 함은 非正統的인 모든 神學 思潮들, 이슬레빈 Schleiermacher의 主觀主義의 神學, Ritschl의 道德的인 價値의 神學, Schweitzer의 實 歷史的인 神學, Barth와 Brunner의 新正統主義의 神學, Bultmann의 實存的인 神學, Bonhoeffer의 世俗化 神學, Robinson의 無宗教的인 基督教 그밖의 모든 現代主義的인 諸神學 思潮들을 통털어서 自由主義라고도 하며 新神學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것이다. 보수주의를 神本主義라 하면 自由主義는 人本主義라 할 것이며 보수주의에 하나님 주권을 根本으로 한다면 自由主義에서 人間性을 존중하는 것이다. 保守主義에서는 聖經을 神의 啓示로서 正確無誤함을 믿으며 예수는 三位一體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등하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사 人類를 위하여 代贖物로 十字架에서 죽으시고 復活昇天하심을 確信하는 것이며 靈界는 하나님의 신령한 통치하에 있고, 天國은 來世的인 場所로 실제로 있는 곳이며, 구원은 믿음에 依하여 사죄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어 永생하게 됨을 믿고 이러한 原理에 立脚하여 信仰生活을 영위하기를 願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道德律이며 最高의 精神이라 생각할 뿐이며 예수는 위대한 인간으로 聖人들 中의 한 분이며 靈界란 비유이며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또 天國은 실제로 있는 곳이 아니며 地上에서의 幸福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社會를 福音化한다는 것은 基督教精神에 立脚하여 地上天國을 建設하므로써 地上에서의 幸福을 追求하고자 함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救援이란 人間回復을 意味하는 것이라 한다.

以上의 對比點에서 볼 때 保守主義는 聖經을 中心한 基督教을, 自由主義에서는 道德과 倫理로서의 基督教을 追求하고 있음을 明白히 알 수 있겠다.

Ⅲ. 韓國에 있어서 改革主義 宣敎

以上에서 筆者들은 現代 自由主義的 神學의 諸學說들과 갈빈주의로서의 改革主義 思想을 살피고 이러한 兩方面의 思想이 捲頭된 動機의 背景, 그리고 그 經緯에 對하여 考察하면서 그 對比點을 檢討하였다.

本章에서는 韓國에 있어서 基督教의 成長과 復興에 對하여 考察한 다음 改革主義 敎會 宣敎의 現實을 살피 봄으로써 改革主義 宣敎의 必要性과 緊急性을 論하고자 하는 바이다.

(1) 韓國敎會의 成長과 復興

韓國에 基督教이 들어온 後 상당히 오랫동안 活潑한 宣敎活動을 펼 수 없었으니 當時 韓國의 政治的, 社會的인 構造面과 오랜 傳統的인 思想 등을 背景으로 하는 韓民族의 生活風習이 基督教을 容易하게 受容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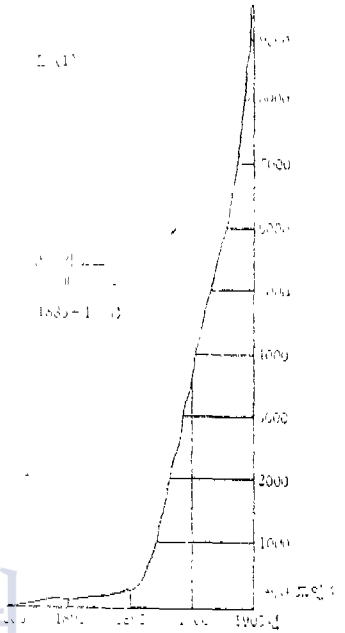
이러한 韓國에 있어서 敎會의 成長은 매우 미미한 樣相을 띠어 오다가 1895년과 1896년의 2년동안 敎會의 세례교인 수는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발적인 增加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¹⁷⁾ 이것은 甲午更張과 같은 新思想의 改革運動이 일어남에 따라 基督教 布敎에 有利한 與件이 造成되었으더 더욱이 淸日戰爭에서 보수적이며 부패하고 오래묵은 政治적 조직을 대표하는 淸이 敗北하고, 進보적인 日本의 勝利로 日本의 勢力이 韓國을 支配하기 시작할때도 起因된 다 할 것이다.

1906년 겨울부터 시작된 靈의 작성운동은 韓國敎會를 사로잡는 불길도 번져갔으니 "1907년의 대부흥은 사경회(查經會)에서 시작되었으며 맨 먼저 평양에서 그것을 체험한 지도자들이 전국 각 지방으로 초청되어 부흥집회를 갖게 됨에 따라서 그러한 부흥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같은 걸잡을 수 없는 속죄와 참회회 집회가 열렸을 때에 신학교 학생들도 역시 거기에 가담 했었다. 그들 모두가 이러한 작성의 힘에 사로 잡혔고, 그 후에 젊은 목사들에 의해 이 불길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고 「한국 교회의 어제와 오늘」에서 코호 박사는 밝히면서 "이러한 작성운동은 여러가지 암운(暗雲)을 지니면서도 오늘날까지 살아서 영적으로 매우 활발한 한국교회를 탄생시켜 했던 것이다"라고 그의 소신을 피력하였다.¹⁸⁾

16) 서명원 著, 이승익 譯, 韓國敎會 成長史, 大韓基督教叢書 刊, 서울, 1972, p. 56참조.

17) 上同, pp. 61~61.

18) 코호 著, 박필림 譯,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세종문화사 刊, 서울 1970, pp. 15~16.





이러한 영적 자성운동이 반드시 敎會의 영적 성장을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을 지 모르지만 “부흥을 정의하면, 그것은 敎會를 정결중계 하고 새로이 헌신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는 성령이 敎會의 양적 증가보다도 교회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용서를 얻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이미 믿는 사람들을 부흥케 하였던 것”이라고 한 말을¹⁹⁾承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韓國敎會는 以後 日帝의 탄압으로 인한 수난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日帝의 신사참배에 對한 強要와 敎會 일부 指導者들의 이에 對한 거부로 인한 獄苦와 殉教라 할 것이다. 이러한 敎會의 수난이 敎會의 成長을 阻害하는 要因이 됨은 勿論이고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목사의 용기를 계승하지 못한채 그저 타협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제시대에 영적 자성운동이 급강하한 이유였다. 그러한 종교적인 신사참배와의 타협은 곧 성령의 역사를 감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指摘한 바와같이²⁰⁾ 敎會의 타락을 露出케 하였다고도 할 것이다.

1907년에 있었던 영적운동과 같은 회개운동이 6.25가 勃發한 직후 고려신학교를 中心으로 하여 일어났음을 “그러나 늦게나마 고려신학교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은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런 다행이 없었다. 마침 전쟁으로 인하여 전국교회 목사들이 부산으로 피난하게 되어 모여들고 고려신학교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은 이들 목사들에게 파급되면서 계속 집회를 가지는 한편 멀리 제주도까지 다른 목사들을 따라가서 회개운동을 계속 벌였던 것이었다. 끝내 부산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은 가운데 전쟁은 멎었다”고 한 상등 목사님은 피력한 바 있다.²¹⁾

(2) 韓國敎會의 現況

以上에서 韓國敎會의 成長과 復興에 對하여 概括적으로 살펴 보았다. 韓國敎會 初期에 있어서 폭발적인 敎會成長 以後 改革主義 信仰路線은 많은 시련속에서도 韓國敎會를 淨化하면서 靈的 復興을 振作시켜 온 것만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祖國의 近代化가 이루어진 오늘날 韓國敎會 現況에서 살펴 보건데 改革主義 敎會들의 힘은 많이 弱화되었으며 宣敎的인 側面에서도 많이 落後되어진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筆者들은 여기서 韓國敎會의 現況을 살펴서 改革主義 宣敎의 緊急性과 그 方法論的인 면을 생각 하느니 資料를 삼고자 하는 바이다.

가) 敎派別 敎勢

長老敎 高神側의 1969年度, 74年度, 76年度의 敎勢 對比表는 아래와 같다.²²⁾

19) 서명원 著, 이승익 譯 前掲書, p. 63.

20) 코호 著, 박빌립 譯, 前掲書. pp. 19~20.

21) 한상등, 소위 고려파가 생기기 까지, 고신학보, 고신학보사 刊, 1972.

22) 敎勢對比表에서 1969년도 통계는 文化公報部 刊 宗教便覽(1969년도판) p. 30에서 발췌한 것이고 74년도와 76년도의 통계는 각 노회에서 총회에 보고한 것을 종합한 통계수치이다. 69년도 목사 수는 목사만이 아니고 전체 교역자를 합친 숫자라 할 것이다.



	67년도	74년도	76년도
교회 수	513	593	573
교인 수	102,125	107,444	83,802
목사 수	교역자총수(702)	258	273
노회 수	8	9	10

위의 統計에서 보건데 목사수와 노회수는 늘어가는 반면 教會數와 教人數는 年次的으로 增加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더러가지로 추측 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確實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教會의 離脫과 集中的인 宣敎의 缺如에서 빚어지는 現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高神側 敎團이 10萬의 信徒를 헤아리게 된 것이 10년 以上이며 600여 會堂이라고 한지도 10년을 훨씬 넘었다고 할 것이니, 10년 동안 한결같은 敎勢만을 維持해 왔다면 하나님께 죄송스러우며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에서 기독교 연합에 의해서 다른 敎團의 敎세를 참고적으로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²³⁾

	합 동		통 합		감 리 교		기 장	
	1970	1976	1970	1976	1970	1976	1970	1976
교회수	1991	2484	2281	2685	1350	1571	689	738
교인수	550,790	668,678	464,470	639,678	289,024	374,805	194,188	290,545
목사수	2,096	2,696	1,204	1,475	850	1,131	453	592

위의 表에서 볼 때 그 어느 敎團도 高神側 敎團을 넘어서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단약 우리 敎團이 계속 宣敎에 있어서 創意的인 發想과 이의 實踐的인 努力없이 앞으로 더욱 微微한 群小 敎團으로 轉落되고 말 것이다.

(나) 敎派別 敎育機關

	교 신	합 동	통 합	감 리	기 장	학교총수
중			24	12	1	1967
고		1	25	17	1	1152
대	1	4	13	9	1	72

위의 表의 숫자도 基督教 年鑑 中 敎派別 表示가 分明히 되어있는 것 만을 나타낸 것이며

23) 1976년도 기독교 연합의 통계적 수치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신빙성을 갖는지 의문시 된다. 그것은 교신 측의 각종 통계가 이미 신빙성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4년제 정규 내학 만 계산하였고 학교 총수는 文敎部 敎育 基本 통계(1975년도)에 依한 것이다. 위의 表에서 보는 바로 保守系의 敎派에서는 敎育機關을 通한 宣敎活動을 얼마나 增한 시 하는가를 充分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다) 出版 및 文化

各 學校에서 發刊되는 定期刊行物은 除外하고 週刊物 7種類, 月刊物이 18種類가 있는데 이들에 對한 正確한 統計的인 資料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文書에 依한 宣敎의 現況과 効用에 對하여 다음 機會에 論評승기로 하고 여기서는 出版에 對하여 극히 一部分的인 面에 對하여서만 言及하기로 하겠다.

基督敎書會가 80여년의 歷史를 가지고 基督敎 思想을 圖書 出版으로써 鼓吹시켜 왔던 것이더 韓國出版界를 거의 席卷하여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는 많은 出版社들이 活氣있게 基督敎 圖書를 出版하게 되었고 영음사같이 特定人의 註釋出版만을 專門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크고 작은 많은 출판사들이 各 基督敎 文書 宣敎에 貢獻하였다 하겠으나 純粹한 改革主義 信仰을 行動化하기 위한 運動으로서 設立된 韓國改革主義 信行協會는 改革主義的인 文書出版에 힘써 왔음은 改革主義 信仰運動을 위하여 크게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韓國改革主義信行協會」의 창설과 역사에 대한 Theodore Hard 선교사의 보고서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²⁴⁾

When Dr. Park Yune Sun returned from studies in the Free Univ. of Amsterdam, he began to speak of the need for organizing in Korea a branch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formed Faith and Action. As I recall, there was no other introduction to the society, and no literature in hand.

The first meeting came about this way. On January 7, 1957 three Korean professors and two missionaries met in Pusan. They were Rev. Messrs. Park Yune Sun, Kim Chik Hong, Lee Sang Keun, and Missionaries Boyce Spooner and Theodore Hard. They agreed on the present name of the society and selected Rev. Park as President, Rev. Kim as Vice-President and Rev. Hard as Secretary-Treasurer,

Other actions of the first meeting were the forming of a committee to pick a Korean name for the society, and to pursue the possibility of republishing a Korean translation of Loraine Boettner's *Predestination*. The Secretary was instructed to report the formation of the society t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The President urged all members to consider the problem of criterion for membership for the next meeting. One other signal action was to receive the book

24) Theodore Hard, *A Historical Sketch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Reformed Faith and Action*, Dec., 18, 1967.



purchase service of the Korea Mission of the OPC run by Mr. Hard.

또한 「한국개혁신의 실행협회 회칙」 제3조의 목적에서, “본회의 목적은 개혁주의 사상과 경힘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복음의 주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하였다. 제4조 사업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明示하고 있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목적을 이룩한다.

1. 연구와 토의 그리고 개혁주의 문서의 저술, 번역, 출판, 보급, 판매에 의하여 개혁주의 사상의 국제적인 교류를 돕는다.
2. 언제나 가능하고 필요할 때는 강연회와 친선을 위한 모임과 수양회를 갖는다.
3. 유망한 학생을 재정적으로 도와서 한국이나 외국에 있는 개혁주의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게 하거나 또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보증을 해 준다.
4. 특히 기독교의 신앙과 행위를 증진시키는데 치중하는 도서관을 설립하거나 확장시키는 일을 돕는다(한국개혁신의 실행협회회칙 p. 2).

20여년을 지내면서 會員도 많이 增加되고 事業도 꾸준히 發展해서 改革主義 思想을 鼓吹시키는 데 크게 貢獻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基督教 文化의 振起시킴을 通한 宣敎에 있어서도 대체로 自由主義 系統의 敎派에서는 매우 活潑한 편이지만 改革主義에서는 微微한 傾向이라 할 것이다. 基督教 敎育에 關한 研究機關, 神學研究機關, 兒童에 關係되는 施設 및 研究機關, 音樂에 關한 施設 및 研究機關, 新宗敎 및 한국사상에 關한 研究機關, 其他 圖書館, 會館을 利用하는 各種 事業 등에 依한 基督教 文化 普及에 寄與함으로써 宣敎를 成就시키고자 하는데, 特히 고려파 敎團에서는 이러한 方面에 매우 等閑視하여 왔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 醫療宣敎

76년도 版 基督教 年鑑에 依하면 全國에 基督教系 綜合病院은 16個 處이고 그 中에서 經營側의 敎團이 확실히한 것은 5個處 病院이라 할 수 있겠는데 장로교 통합측 2個處, 감리교 2個處 장로교 高神側 1個處로 나타나고 있다. 高神側에서 經營하는 부산 福音病院의 규모는 종합병원으로서 完備한 것이라고 자랑할만한 것은 못된다 하겠다.

더우기 該病院의 院牧室에서 提供하는 統計에 依하면 月 入院患者는 240名, 여기서 1~2日의 最短期 入院患者나 重病에 依하여 死亡하는 患者를 除外한 月 200名이 常時 入院 患者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信者를 除外하면 傳道對象이 되는 患者는 100名 정도가 된다고 하며 이를 不信者들 中 入院으로 因한 決信者 數는 月 平均 40名인 바 약 40%의 成果를 올리고 있는 實情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決信者들도 일단 退院하면 계속 信仰生活을 維持하는 가의 與否에 對해서는 院牧室로서 未確認 狀態라 한다.

이러한 面에 比추어 病院을 通한 醫療宣敎가 크게 成果를 올릴 수 있는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는 무엇보다 施設擴充과 宣敎費에 더욱 많은 豫算을 投入하여 보다 能率의이며 完壁을 期할 수 있는 傳道方法을 講究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特殊宣敎

特殊宣敎라 함은 軍警宣敎, 社會福祉를 통한 宣敎, 産業宣敎, 學生宣敎 등을 指稱하며 特殊한 分野를 對象으로 專門的인 宣敎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1975년 5月 現在 大韓民國 國軍의 軍牧 總數는 320명이라 하며 이 中에 신부가 50명 僧(僧)가 30명이 포함된다고 한다.²⁵⁾

1973년 9月 30日 현재 육군신자 수는 기독교가 206,144명, 천주교 33,832名 불교가 34,657 名 타 종교가 2,285명이라 한다.²⁶⁾ 軍牧 總 320名 中 본 교단 파송 군목은 4名인 바 전체 비율로서는 약 1.5%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본대학 재학생 中 26名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軍牧 候補 生을 保有하고 있지만 1976년도 軍牧募集 總 人員數가 91名인데 比해 本大學에서 6명 合格으로 6%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며 12개 大學에서 뽑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10%이상 차지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생각하면 아직 우리 高神側의 軍宣敎는 開拓段階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社會福祉를 통한 宣敎란 養老院 고아원 등의 자선단체를 말하는 것인바 高神側 많은 人士들이 이 方面에 從事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實踐하여 福音宣敎에 盡力하고 있음은 周知 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社會 慈善團體는 그동안 多少나마 外援이 없지 않았으나 近來에 이르러 이러한 外援은 거의 끊어지고 國家의 補助와 自力으로 運營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機關을 運營하는데 드는 막대한 經費를 조달하기에 대단한 애로 를 갖는 그들 經營人士들을 教團의 次元에서 支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機關들을 통한 福音宣敎의 成度는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本教團에서 産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을 對象으로 하는 宣敎의 對策을 論議한 바 없으며 이 方面에 關心과 使命意識을 갖고 投身하는 敎役者도 아직 없는 형편이라 하겠다.

한국 기독교 내에는 學生들의 團體와 서클 및 청소년 分會를 지도, 육성하기 위한 연구기관 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전국 學生신앙운동(S·F·C) 만큼 개혁주의 원리에 입각한 신앙과 생활 의 순결을 목표로 하고 순수한 신앙만을 固守하면서 계속되어 온 학생단체는 한국내에 없는 줄 보 안다. 이 점에 있어서 保守系의 자라이며 재산이라고 해서 못할 줄보 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도회 모임에서 처음에 學生신앙운동 협조회(1947)라 부르다가 1948년 8월 2일 學生신앙운동이라고 그 명칭을 한정했다. 이것은 사실상 이 운동의 역사적인 기원이다.”²⁷⁾ 이렇게 시작된 S·F·C는 신앙으로 살아보겠다는 열심을 綿綿이 이어받아 오늘에까지 이 르고 있는 것이며, S·F·C를 통한 宣敎와 信仰의 指導者 養成 및 成人에 이르러서도 순수한 信

25) 김 석영, 軍선교의 현황과 전망, 고신대학보, 1975년 5월호.

26) Ibid

27) 學生신앙운동 20년사, 전국학생신앙운동 刊, 1971, pp24~25.



仰을 維持할 수 있는 信仰과 성경지식 배양이라는 點에 있어서는 赫赫한 功勞를 남겼다 할 것이다. S·F·C의 가장 큰 사업이며 象徴이라 할 수 있는 修養會의 實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회	남	여	합	교회수	학교수	때	장 소	로 계
1	131	24	155	31	49	'48. 8. 2-7	고려신학교	없 음
2	145	51	196	42	59	'49. 1. 11-16	"	"
3	141	61	202	45	55	'49. 8. 3-9	"	"
4	94	50	144	34	39	'50. 1. 9-14	"	"
5	〈사 변〉		약350			'51. 7. 23-29	"	"
6	139	97	236	42	54	'52. 7. 21-28	부산남교회	고난의 의의
7	221	130	351	53	76	'53. 1. 5-10	"	영광을 하나님께
8	381	175	556	128	176	'54. 1. 5-13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9	578	322	900	177	176	'54. 8. 3-11	"	충신된 증인
10	502	250	752	285	232	'55. 1. 4-11	"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11	312	187	499	111	112	"	"	계상의 소금
12	266	141	407	155	136	'56. 8. 7-13	고려신학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3	130	70	200	52	66	'56. 12. 28-1. 3	서울총현교회	진리로 거룩하게 가소서
14	205	110	315	63	107	'57. 12. 13-16	부산남교회	우리의 살길
15	151	66	222	57	101	"	"	주와 함께
16	160	65	225	63	69	'59. 1. 7-13	대구성남	내주여 뜻대로
17	325	154	479	84	148	'60. 1. 6-12	진 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8	319	114	433	154	105	'61. 1. 5-11	대전중앙	처음 사랑을 찾자
19	706	360	1066	534	194	'62. 1. 18-24	대구석문	절음돌아 어이할꼬
20	471	865	1336	282	162	'62. 8. 16-23	서울승동	신경으로 돌아가자
21	294	197	491	170	76	'64. 1. 9-14	부산 남	새 역사를 향해서
22	314	197	511	126	83	'65. 1. 7-12	제2문창	보라 여호와와 의 깃발을
23	242	128	370	143	57	'66. 1. 10-14	경 주	네가 선 땅은 어디냐
24	282	130	412	155	85	'67. 1. 12-17	기 창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25	415	346	761	220	93	'68. 1. 11-16	서 문 로	땅을 정복하라
26	490	393	883	261	84	'69. 1. 9-14	부산 남	내 주는 감람 성
27	450	323	775	98	226	'70. 1. 8-14	진해남부	주마음 본 받자
28	724	579	1303	114	369	'71. 1. 4-9	부산삼민	내 장막더운 넓혀라
34	483	402	885	125	460	'77. 1. 17-22	서울 서문, 증 양, 성원	제사관 삼아라

28) 上同 pp. 69~70.



위의 表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바로는 모이는 숫자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것은 수양회가 보다 과학적인 조직과 체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흥분과 열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젊음을 발산하는 기회로 끝나 버리는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수양회로 모이는 그때보다도 모인 후에 얼마나 학생들 마음속에 새로움을 간직하고 학교와 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이에 는 지도층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평소 학생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과거 S·F·C를 통한 선교의 효과면에서 생각할 때 더욱 緊要한 일이라 하겠다.

IV. 宣敎의 原理와 提言

(1) 선교의 성경적 근거

G. W. Peters는 그의 저서 「Saturation Evangelism」에서 “The Supreme mission of church is missions—the sending forth of heralds to announce the good news of God” 라고 하였고, “The urgent mission of the church remains as long as there are people without the Gospel”라 말한 바와 같이²⁹⁾ 敎會가 맡은 가장 重要한 使命은 福音傳播하는 宣敎事業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宣敎使役을 遂行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갖게 된다.

“What is the basis of missionary work? Why is it necessary? What position does it occupy within the total frame work of Scripture’s commands and promises?”³⁰⁾

宣敎의 使役은 단순히 宣敎에 關한 興味나 宣敎學의 學位를 取得하는 것으로 充足되는 것은 아니다. 宣敎에 對한 깊은 關心과 努力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은 宣敎에 對한 바른 概念과 使命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가) 하나님 사역인 宣敎

宣敎는 人間的인 企劃이나 考案이 아니며 단순한 博愛精神의 產物도 아닌 것이다. 宣敎는 어떤 人間的의 두뇌나 마음의 祈願한 바도 아닌 것이다. G. H. Bavinck가 말한대로 宣敎는 하나님의 使役인 것이다.³¹⁾ 宣敎의 根源은 하나님이 원히 계획하신바며, 인간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實現되었다. 宣敎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을 啓示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表現인 것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29) George W. Peters, *Saturation Evangelism*, Zondervan Publishing House, Grand Rapids, Michigan, 1971, p. 25.

30) J. H. Bavinck,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Philadelphia, 1960, p. 3.

31) *Ibid.*, p. 5.



이 성경 句節은 신약성경의 中心的인 本文이며 福音의 심장이라 할 것이며, 또한 宣敎를 위한 中心的인 本文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人間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罪人을 구원하기 爲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人格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人間을 찾으시는 것에 關하여 記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찾으심에 關하여 1장 1장에서 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Robert H. Glover는 “성경전체가 선교의 책이다”라고 表現하고 있다.³²⁾

나) 예수 그리스도와 선교

改革主義의 그리스도 觀에 對하여는 이미 第 1章과 第2章에서 概括的으로나마 살펴 보았다. 世界宣敎를 爲한 그리스도의 關心은 어떠한가?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아닌 異邦人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리스도는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願하셨다는 것은 分明해진다.

다) 구약과 宣敎

① 人類에게 준 하나님의 啓示의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옛세지와 자기의 宣敎를 舊約과 關聯시켰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약의 豫言과 事件이 成就되었던 것이다. 그리스도를 通하여 人間이 救贖을 받게 된 原始的 福音은 創世記 3章 15節이며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사실을 確認하고 있다.³³⁾

1. Salvation is God-wrought; thus it is certain and full of grace. God is its source, Originator, Initiator and Procurer. Salvation is of God. He is mankind's only hope. This refutes humanism, the self-redemption of man, and the principle of inevitable progress, especially as it relates to the religious development of mankind.

2. Salvation will destroy Satan, the enemy. Thus evil is not a permanent scourge of mankind and this world. God and good will eventually triumph. This refutes the theory of dualism and also the cyclical theory of history and experience as it underlies most Oriental religions.

3. Salvation will affect mankind as a whole; it is broader than only the individual or a nation. This refutes the theory of narrow particularism in election and atonement. Salvation will reach the nations and eventually the race. This must not be interpreted to mean that all men will eventually be saved, for the Bible does not justify such a hope and claim. The fact, however, is that when God's program will be completed, there will be a reversal in the count; while numerous individuals will be lost, the race as such will be saved.

4. Salvation will come through a Mediator who in an organic way is related to mankind. He

32) Robert H. Glover, *The Bible Basis of Missions*, Moody Press, Chicago, 1976, p. 14.

33) George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Moody Press, Chicago, 1972, pp. 85~86.

is of the seed of the woman. This passage is the only place in the Bible where the term “seed of the woman” is used. Thus the Redeemer will be true man, as Christ indeed was. He was real man although not mere man.

5. Salvation is bound up with the suffering of the Redeemer; the enemy shall bruise His heel.

6. Salvation will be experienced within history as the fall is a part of history. It is as real as the fall is real and as present as the fall is present. Salvation, therefore, as upheld in the Old Testament (Gen 3:15), includes mankind in promise, provision, purpose and potential.

② 國家的인 宗教의 책임

유대 국가의 宗教 그 自體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면에서 보편성을 提示하고 있다.³⁴⁾

1. The constant emphasis upon monotheism in the Old Testament reveals God as the sole Creator and benevolent Ruler of the universe.

2. The insistence upon God as the Lord of hosts who remains the Ruler and Judge of the nations and who actually uses them as His instrument in advancing His cause.

3. The pronounced and condemning attitude toward development and practices of religion outside the sphere of particularistic revelation.

4. The clear pronouncements and inclusive promises of the Old Testament.

5. The solemn and unique calling of Israel to be God's witness and God's priestfood as instituted under Moses and developed by the prophets.

③ 예언서에 나타난 보편성

㉞ 이사야서에 나타난 선교의 보편성

이사야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라”(43:10; 44:8), 나의 자자들(42:19; 44:26) 이라는 책임이라 하겠다. 이사야는 이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가진 바 죄대의 책임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세가지 중요한 사실로서 이루어져 있었다. 첫째 이스라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의 선교는 하나님 증심의 선교이다. 셋째 이스라엘의 선교는 모든 국가를 향한 선교이다.

㉟ 하박국서에 나타난 선교의 보편성

하박국서에서는 보편적인 의미로써 세가지 근본적인 原理를 갖고 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보편적인 원리(2:2)

둘째 주님의 영광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2:14)

셋째 주님의 경배에 대한 보편성(2:20)

34) Ibid., pp. 106~110.



라) 사도 바울과 선교

기독교의 福音은 모든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 文化人과 野蠻人, 男子와 女子, 奴隸와 自由者를 위한 福音이라는 것은 바울의 思想이다(골2:11 롬1:14-16). 구원이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부디 왔고 그 根源이 율법아래 있는 사람을 통해 세워졌지만 그것은 全人類를 위한 것이다(행15; 갈4:4; 요4:22; 요4:42).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를 향하도록 계획되었던 것이다(행1:8).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도록 中心的인 役割을 한 1세기의 人物은 베드로와 바울이었다.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복음이 어떻게 발전되어진 것인지 세밀히 기록하고 있다.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증거되었고, (행1:1-7) 그 다음은 팔레스타인과 사마리아에 전파되었고(행6:8-9:31) 그 다음은 안디옥까지 전파되었다. (행9:32-12:31)

사도행전의 둘째부분은 복음이 소아시아(행12:52-16:5) 유럽(행16:6-19:20) 그리고 로마에 까지 증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이방전도의 中心地가 되었다. (행13:1-3), 왜 안디옥 교회는 이방선교의 中心地로 선택되었던가? 그것은 지리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世界宣教를 위한 좋은 立地的 條件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對하여 Michael Green이 잘 說明하고 있다.³⁵⁾

사도 바울은 여섯가지의 論證으로 宣敎의 보편성을 提示했다.³⁶⁾

1. Ethical monotheism, which he presents in the form of rhetorical questions.
2. The justification of Abraham while yet a gentile (창17)
3. The sin of Israel in rejecting the Messiah(롬9:-11: ; 11:25).
4. The incompleted revelation of the Old Testament (롬11:25 ; 계5:9 ; 계1:14 ; 요전9:22).
5. The nature and composition of the church (행26:23 ; 롬1:5 ; 11:13 ; 15:15-16 ; 갈1:16 ; 2:8-9 ; 엡3:1 ; 3:4-8 ; 형26:15-18).

(2) 선교적 과업

(가) 선교적 과업의 性質

선교적 과업의 궁극적인 성질이 무엇인가? 선교적 課業에는 可變的인 性質과 不變的인 性質이 있다. 불변적인 性質은 다음과 같다.³⁷⁾

① The missionary task is a Spiritual task.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선교과업은 성령에 依存한다. 오직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이 행시키고 적응시키고 効果있게 한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선교활동을 통하여 구체적

35) Michael Green,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Hadder and Stoughton, 1970, pp. 113~114.

36) George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Moody Press, Chicago, 1972, pp. 152~154.

37) *Ibid.*, pp. 159~166.



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Orlando E. Costas는 본질적으로 선교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했다.³⁸⁾

② The missionary task is a Biblical task.

전전한 성경교사만이 宣敎的인 敎師가 될 수 있다. 선교사가 전달한 메시지는 성경 속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선교사들의 메시지는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진다.

③ The missionary task is a task of faith.

하나님께서 基督教을 信仰의 宗教로 制定하셨다. 客觀的인 觀點에서 볼 때 기독교는 超自然的 啓示의 宗教이며 主觀的인 觀點에서 볼 때 기독교는 信仰의 宗教라 할 것이다. 信仰은 하나님을 보게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들을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 말씀으로써 성경을, 알도록 만듦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으로써의 선교적 과업을 받아 들이게 한다.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신앙은 모든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이다. 신앙이 없는 곳에 영적사역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④ The missionary task is a human task.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환경 속에서 人間을 구원하는 선교과업을 成就시키기 위해 人間을 도구로 선택하셨다. 人間은 能動的이며 活動的인 存在이다. 인간만이 모든 일을 가장 효과있게 成功的으로 遂行할 수 있다. 人間은 文化的인 상황에서 活動한다. 선교과업에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인 인간인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人類救援의 大業을 成就시켜 나감을 성경은 밝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빌1:5-11).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유대인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었으며, 유대인으로 생활했으며 유대인의 풍속을 준수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의 선교물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國家的, 社會的, 文化的 동일성 속에서 수행하는 人間課業임을 말했다. (고전9:10-23).

나) 선교과업을 위한 二重的인 命令

하나님께서 人間을 구원하시기를 위한 선교과업을 二重的으로 命令하셨다. 첫 아담에게 命令하셨고, 또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에게 命令하셨다.

① 宣敎課業을 위한 첫 命令

선교과업을 위한 첫번째 命令은 人類의 代表者인 아담에게 내려졌다. 아담에게 명령한 것은 廣義的 意味에서 宗教를 포함한 명령이다. 이에 대하여는 George W. Peters가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5절로써 잘 설명하고 있다.³⁹⁾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도덕적인 질

38) Orlando E. Costas, *The Church and its Mission*,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Wheaton, Illinois, 1974, p. 17.

39) George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p. 66참조.



서와 창조 목적에 일치하는 참된 인간이 되도록 하며 이러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文化를 形成시키는데 있다. 이와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 되었다.

② 선교과업을 위한 두번째 명령

선교과업을 위한 두번째 명령은 그리스도 敎會의 代表者인 信者들을 향한 명령이다. 이 두번째 명령은 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과 敎회의 계획과 敎회의 보살핌과 有能한 선교사들을 통해 성취된다. 여기에 대한 구체화는 다음과 같은 것에서 발견된다.

- ㄱ. 12제자의 파송(마10:1-20 ; 막3:13-19 눅6:12-16).
- ㄴ. 70인의 파송(눅10:1-20).
- ㄷ. 12제자를 더 번곳으로 파송(마16:14-18 ; 눅24:36-49 ; 요20:19-23 ; 행1:7-8).
- ㄹ. 바울의 파송(행9:15-16 ; 26:14-20).

선교과업을 위한 두번째 명령은 原理的으로 罪와 犯罪의 問題에 관계되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는 사람을 완전한 전 인격자로 만들며, 인간을 창조적인 목적에 일치하는 인간과 선교적인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선교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다) 선교과업을 위한 위탁의 개요

4복음서에는 선교과업을 위해 위탁한 내용이 각각 특색있게 나타나 함께 조화를 形成하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⁰⁾

- 마태— 그 천세 전체를 포괄하는 목표, 그 과업의 시간적 확장
- 마가— 선교의 지리적 범위와 방법 및 긴급성
- 누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와 선교의 보편성
- 요한— 선교를 위한 영적 무장과 영적인 성질

(3) 宣敎의 目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활동에는 目的과 目標을 갖고 있다. 선교에 있어서도 목적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 선교의 목적을 Robert H. Glover는 核心과 지방교회 설립의 두가지로 생각했고⁴¹⁾ R. B. Kuiper는 ① the salvation of the Souls ②the growth of Christ Church ③ the coming of Christ Kingdom ④the glory of God 등으로 생각했다.⁴²⁾ 또 J. H. Bavinck는 선교의 목적을 다음의 세가지로 보고있다.⁴³⁾ ① the converion of the heathen ②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③the glorification and manifestation of divine grace.

40) Ibid., p. 174.

41) 클로브 저, 이 요약역, 세계 선교의 발달, 집례회출판사, 서울, 1972, p. 19.

42) R. B. Kuiper, *God-Centered Evangelism*, The Banner of Truth Trust, London, pp. 106~117.

43) J. H. Bavinck, Ibid., p. 115.



이와 같은 선교의 세가지 목적은 각각 분리되어 있거나 개별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일목적에 나타난 세가지 局面일 뿐이다.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단일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의 倒來와 그 擴張이다. “하나님의 왕국의 到來”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선교한 그 중심점이다.⁴⁴⁾

4) 선교의 방법

가) 선교 전략

선교의 方法을 論하기에 앞서 선교의 전략에 대하여 생각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전략에 따라 선교의 方法을 抽出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의 Vision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C. Peter Wagner의 설명에 따라 기본적인 세가지 농사법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⁴⁵⁾

- ① The law of sowing
- ② The law of pruning
- ③ The law of harvest

우리는 세계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선교활동을 不絶히 展開해야 한다. 위의 선교전략에 따라 人間이 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선교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The person-to-person method so well illustrated in the ministry of Christ and in the book of Acts. There is Christ's meeting with John and Andrew (John 1:35-40); His discussion with Nicodemus (John 3:1-21); His conversation with the Samaritan woman at Jacob's well (John 4:5-25); His restoring visit with Peter (John 21:15-22). This method was followed by Philip in his unique meeting with the Ethiopian eunuch (Acts 8:26-38); and somewhat later by Ananias as he assisted Paul in his crisis experience (Acts 9:10-19). These, no doubt, are only some of many similar incidents recorded to illustrate a principle and method of gospel communication.

2. The group method, or household evangelism, as illustrated in the numerous home services and ministries Christ conducted up and down the villages of Galilee. This method is further illustrated in the experience of Peter in the home of Cornelius (Acts 10:24-48). The many household conversions recorded by Paul were the results of similar services.

3. The informal and public proclamation of the Gospel, as so richly practiced by Christ in Galilee and Judca, and later by Peter at Pentecost and the days following. Paul preaching in the market

44) H. Riddervos, *The Coming of the Kingdom*,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9, p. 18참조.

45) C. Peter Wagner, *Frontiers in Missionary Strategy*, Moody Press, Chicago, 1971, p. 41참조.

46) George W. Peters. *Saturation Evangelism*, pp. 18~19



places and on Mars Hill followed the same method (Acts 2:1-40;17:17-31)

4. The proclamation of the message in the form of formal Bible readings and expositions, dialogues and disputations, reasoning the persuading, as Paul practiced it at numerous occasions in the synagogues of the dispersion (Acts 9:22-29 ; 17:2, 10, 11, 17;18:4, 5).

5. The rebuking and compelling historic and polemic messages of Peter (Acts 3:4); Stephen (Acts 6;7); Paul (Acts 13;22;23),

6. The persuasive, factual and experiential apologetic type of presentation of the truth as illustrated by Paul in his message to Agrippa in Acts 26 and referred to in Galatians 3:1

나) The Nevius Method

한국선교는 The Nevius Method를 적용하여 成功했던 것이다. Nevius는 선교의 두가지 큰 원리를 提示했다. 그것은 ① The Bible training class system ② self-support이다. H. G Underwood 목사는 The Nevius Plan을 다음과 같이 要約해서 說明했다.⁴⁷⁾

1. Let each man abide in the calling wherein he was found, teaching that each was to be an individual worker for Christ, and to live Christ in his own neighborhood, supporting himself by his trade.

2. To develop church methods and machinery only so far as the native Church was able to take care of and manage the same.

3. As far as the Church itself was able to provide the men and the means, to set aside those who seemed the better qualified, to do evangelistic work among their neighbors.

4. To let the natives provide their own church buildings, which were to be native in architecture, and of such style as the local church could afford to put up.

다) 宣敎的인 使命遂行의 方法들

Harold Lindsell은 선교적인 사명수행의 방법으로서 ① evangelism ② education ③ medicine ④ literary를 提示한다.⁴⁸⁾

1) 복음전도

모든 선교사역에 있어서 指針이 되는 原理 中의 첫째는 그 方法이 目的과 調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그 方法들이 効果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과 敎會史를 通하여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實驗되고 알려진 복음전도의 방법은 복음을 무엇보다 中心에 두어야 한다는 복음전도이다.

47)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1884~1934, p. 87.

48) Harold Lindsell, *Missionary Principles and Practice*, Fleming H. Revell Co., Old Japan, New Jersey, pp. 189~239.



다른 말로 말하면 宣敎使役의 모든 형태와 方法은 복음전도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다. 초대 교회가 확장되고 성공적인 복음전도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시대에 가능한대로 널리 복음을 전하고자하는 열심에 사로잡힌 것.
2.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이 있었다.
3. 복음을 통한 구원 능력에 대한 증거의 기회를 크게 잡을 것
4.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복음을 바르고 진실되게 증거할 것
5. 나쁜 地方에 까지 이르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
6. 주요도시를 中心한 전도방법
7. 대도시를 中心으로 계획하여 전도를 실시한 지도력
8. 기도와 성령충만

② 교 육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기독교적 교육을 들 수 있다. 교육에 의한 전도의 기본적인 目的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의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다. 理想的인 意味에 있어서 참된 敎育은 福音主義의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만을 취급하고 그의 창조주와의 관계를 통한 그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참된 敎育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眞理의 源泉은 하나님이다.

敎育에 의한 宣敎는 여러가지 理由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우수하고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왜 敎育宣敎가 必要할까?

1. 이 方法은 마음을 열지 않은 이들에게 接近의 좋은 수단이 된다.
2.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敎育을 통한 個人的 만남의 機會를 갖게 된다.
3. 敎育에 의한 宣敎는 간접적으로 선교 대상을 유도할 수 있다.
4. 敎育에 의한 宣敎는 지도자의 필요성을 느끼는 모차교회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 敎育宣敎의 指導하는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1. 敎育事業의 理想과 結果가 복음주의적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除外시켜야 한다.
2. 습관한 사람들이 그 事業을 위해 고용되고 있는가?

③ 醫 療

의료는 사람을 복음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의료에 의한 선교 方法은 오늘날 正統的인 方法으로 評價된다. 醫療宣敎의 當爲性을 主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生活을 이해함 보다 더 좋은 根據는 없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聖句들이 이것을 證據해 준다.

마12:15, 15:30, 19:1-2, 21:14, 마10:1, 눅10:1.8.9, 행5:12, 12:16



의료선교의 方法은 어떤 것인가?

1. 의료선교에 있어서 순회전료는 참으로 効果가 크나, 그것은 단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구를 들고 다닐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2. 병원, 약국, 종합형태도 일반적인 方法이다.
3. 공중위생을 돕는 것이다.

④ 文藝 宣敎

宣敎方法 중 다른 하나는 文藝 活動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번역사업과 인쇄사업이 관계된다. 文藝活動의 目的은 그 지역의 言語로 적확한 文藝를 보급하는 것이다. 성경 번역과 복음에 관계되는 서적의 번역 사업이 문서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며 또한 메스름을 利用하는 것 역시 宣敎에 있어서 必要 不可缺한 要素가 될 것이다.

(5) 改革主義 宣敎에 對한 提言

以上에서 매우 一般論的이기는 하지만 宣敎에 對한 原理的인 面을 생각해 보았다. 宣敎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地上教會의 任務이며 使命인 것이다. 사실 우리 基督人들의 信仰生活 自體가 모두 宣敎와 直結되는 것이다. 더우기 地上 教會에서는 人間理性에 依支하여 正當的인 信仰生活를 拒否하고 正統의 神學에 끊임없이 挑戰하는 일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命令인 宣敎에 對한 任務수행에 차질을 가져오리만큼 保守神學은 損傷을 입어왔다. 現代의 高度化된 物質文明은 더욱 曄々한 神學思潮들만 產出하여 人間享樂에 발맞추고 있는 現實 앞에서 改革主義 神學을 信奉하는 우리들의 使命은 더욱 至大한 것이다. 그럼에도 現代에 있어 保守主義 教會의 宣敎狀況은 그렇게 밝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더우기 韓國에 있어서 本敎團의 지난 30년간 宣敎實態를 두고 생각할 때 과연 주님께 칭찬 받을 만한 것인지 反省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1960년 우리나라 인구는 24,954,000명이었는데 1975년의 인구는 34,688,000명으로 15년 사이에 무려 9,734,000명이 늘어나서 약40%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敎團의 成長率은 너무나 微微하였으며 앞의 통계를 보건되 5년간 변동된 것은 거의 全無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勿論 여러가지 要因들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변명할 수 있겠으나 宣敎보다 더 重要한 課業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1975년 10월 1일 國庫 文公部에서 發表한 韓國의 宗教別 敎勢 現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宗教別	區分		
	教 堂 數	教 職 數	信 徒 數
佛 教	5.692	19.982	11.972.930
로 마 敎	2.319	3.952	1.012.209
基 督 敎	16.089	19.066	4.019.313
儒 敎	256	11.944	4.723.493



天 道 教	140	1. 629	815. 385
大 信 教	36	37	128. 198
圓 佛 教	234	1. 402	740. 362
其	1. 230	6. 948	1. 864. 463
計	26. 016	64. 960	2. 527. 653

위에서 보는 바 기독교 총 신도수는 4,019,313명 인데 本敎團 교인수는 83,802명으로 불과 2%에 지나지 않는다. 敎會數도 基督教 全體의 3.5%인 것이다. 또 한국의 모든 異敎徒에 比하면 0.33%인 것이다.

이러한 面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왜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宣敎的 眼目과 戰略의 貧困, 그리고 宣敎에 對한 使命의 저하에 依한 任務의 소홀에서 빚어진 結果임을 告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總會에 宣敎部가 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總會 敎나 만나 의논하는 宣敎部로서는 그 막중한 任務遂行에 未洽한 것이다. 지난 26회(1976년도) 총회에서 비로소 총회 總務室이란 常設機構를 樹立했다는 것은 晚時之嘆은 있으나 꼭 다행한 일인 줄 안다. 充分한 計劃아래 實踐을 하여야 할 것이고 總會 산하 전교회에 모처럼 세워진 계획에 적극 호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中 高 大의 敎育機關設立이 時急한 상태이다. 特別 師範大學 設立에 依한 改革主義思想에 철저한 中等敎師 養成은 牧師 養成이나 宣敎師 派送 못지 않게 緊要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일반 민중에 대한 기독교 교육이 공헌을 남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은 성장이 빠른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교회 확장에 관심을 가지고 종사하는 교수진을 가진 대학, 그리고 대부분이 기독교인 학생들트 이루어진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서명원 박사는 韓國敎會成長史에서 力說하고 있다.⁴⁹⁾

우리는 宣敎를 위해 의욕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充分히 宣敎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지 反省해야 할 것이며,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의표봉사로써의 선교사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本敎團 總會 出版部가 登錄되어 있고, 또 本大學 出版部가 登錄되어 있으나 充分히 活用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總會 出版部 主役 敎科書 出版이 全部이며, 本大學 出版部에서는 改革神學 叢書 1.2.3.4卷 出版 外 敎授 研究 論文을 出版하였으며, 特別 高神大學報의 月刊은 힘겨운 일로써 그 동안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高神大學報」는 問題點이 없지 않지만 總會 機關紙로서 役割을 다했다 할

49) 서명원, 이 승익 譯 한국교회성장사, 대한기독교서회 刊, 서울, 1977, p. 26.



수 있는 바 每月 수 만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出血的인 出版을 계속한 것은 慶賀해 할 일이거나, 집필진과 經營費 조달에 있어서 汎教團的인 참여가 아쉬운 형편이라 할 것이다. 또 基督教放送局의 「恩惠의 時間」이 그동안 많은 애로를 무릅쓰고 本 大學 教授들의 奉仕에 힘입어 꾸준히 계속되었는데 이에도 더 많은 후원자들이 참여하여 보다 효과있게 運用되어야 할 것이다. 宣敎에 있어서 看過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업은 地下教會 宣敎이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후 수많은 교인들이 고문을 당했다. 이로 인해서 兪全 시에서만도 기도 그룹이 거의 500이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하교회에 매주일 수 천명 달하는 교인들이 비밀리에 모이곤 하였다” 고 한다.⁵⁰⁾ 이러한 地下 教會를 위한 宣敎研究와 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은 물론 祖國의 統一이 成就될 것을 豫想하여 北韓宣敎에 對한 對策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軍收에 對한 支援과 産業傳直, 學生問題研究 및 전도 등 多方面에 걸쳐 具體적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結 語

急變하는 現代에 있어서 改革主義 教會의 責任은 실로 至大한 것이다. 現代에 와서 教會들은 大型化하며 企業化되어진 感이 없지 않다. 또 聯合體를 構成하는가 하면 화목옥 내세워 總和를 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코호氏의 “교회의 종화는 하나의 거대한 묘비다. 그 묘비는 언젠가 신자들이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삼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고 한 바와 같이 外形的인 教會가 그 모습이 巨大할수록 더욱 現代主義의 허영에 빠져 教會의 참 모습을 잃었을 때 얼마나 삭막한 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教會는 人間들의 主義主張을 討論하는 장소일 수 없으며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의 利用體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教會는 너무나 그 本然의 姿勢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 信仰과 生活의 순실을 다짐하는 改革主義 教會들은 허물어진 祖國教會를 再建하는에 全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現代에 있어서 교회의 혼란이 어떻게 해서 惹起되었으며, 이에 對抗하는 保守主義神學들을 살펴봄으로써 改革主義 教會들의 任務와 責任을 自覺하고자 했다. 그러나 本教團이 改革主義 教會라고 하면서도 宣敎面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점하고 있는가를 여러 방면으로 살펴 보았으며 선교의 원리면을 고찰함으로써 宣敎에 對한 後進性을 覺省하게 하여 우리 教團의 宣敎에 對한 새로운 對策樹立에 다각도의 提議를 했다.

오늘날 基督教의 土着化를 부르짖어 韓國傳來의 思想과 混雜을 피하려 함에 있어서 더욱 우리는 우리의 使命에 盡力해야 할 것이다.

50) 고호 지, 박 필립 역,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새종근화사, 서울, 1970. p. 43.



참 고 문 헌

1. Bavinck, J. H.,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Philadelphia, Pa., 1960.
2. Costas, Orland E., *The Church and Its Mission*,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Wheaton, Illinois, 1974.
3. Glover, Robert Hall., *The Bible Basis of Missions*, Moody Press, Chicago, 1946.
4. Glover, Robert Hall, *The Progress of World-Wide Mission*.
5. Green, Michael,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Hadder and Stoughton, 1970.
6. Kuiper, R. B., *God-Centered Evangelism*, The Banner Truth Trust, London, 1966.
7. Kelley, Dean M., *Why Conservative Churches are Growing?*, Harper and Row Publishers, New York, Evanston, San Francisco, London, 1972.
8. Lindsell, Harold, *Missionary Principles and Practice*, Fleming H. Revell Company,
9. Old Japan, Hew Jersey, Peters, George W.,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Moody Press, Chicago, 1946.
10. Peters, George W., *Saturation Evangelism*, Zondervan Publishing House, Grand Rapids, Michigan, 1970.
11. Phodes, Harry A., (Editor)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1884-1934*, Chose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Soul, Chosen.
12. Wagner, C. Pater, *Frontiers in Missionary Strategy*, Moody Press, Chicago, 1977.
13. 高神大學報, 통권 제 26호, 67년12-1월호, 고신대출판부, 부산 1976.
14. 高神大學報, 통권 27호 77년2월호, 고신대출판부, 부산, 1977.
15. 글로버, 로버트 홀 원저 티버트 케인, 개정증보, 이 요한 譯, 세계선교의 발달, 침례회출판사, 서울 1972.
16. 기독교 연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2.
17. 金光植 著, 宣敎의土着化, 한국신학연구소출판부, 서울, 1945.
18. 김 남식 著, 韓國基督教青年運動史, 기독교장년연려회, 전국연합회, 1972.
19. 金 義煥 著, 挑戰만는 保守神學, 생명의 달씀사, 서울, 1974.
20.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총회록(1952년부터 1960년까지) (제11회-제20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1961.
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록(1961년부터~1970년까지) (제11회~제20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1971.
2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지록(1972년부터 제22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부, 1973.
23. 드릴르, X. H. 著 金 周炳 譯, 自由主義神學, 大韓基督教書會, 서울, 1968.
24. 라드센, 하롤드 編, 갈 핀도 발행, 基督教의 世界宣敎, 생명의 달씀사, 서울, 1967.
25. 백가브란 著, 趙 東儀 譯, 教會成長戰略, 크리스찬헤벨트사, 서울, 1976.
26. 에킨트쉬, H. R. 著, 金 在俊 譯, 現代神學의 先驅者 들, 大韓基督教書會, 서울 1973.
27. 모이어, E. &. 著, 곽 안진 신 재원 共譯, 人物中心의 教會史, 大韓基督教書會 서울 1975.
28. 閔 庚培 著, 韓國基督教會史, 大韓基督教書會, 서울, 1972.
29. 바이얼하우스, p. 著 金 南植 譯, 宣敎政策原論, 한국성서공회, 서울, 1976.



30. 박형용저, 신복음주의비평, 보수신학서적간행회, 서울, 1971.
31. 발탄, 요넨디우스 著, 李 相根 譯, 갈 바르트는 정통 신학자가 되었는가? 한국개혁주의 신학협회, 부산, 1959.
32. 빌프르, I. 서 김진송 김정낙공역, 基督教 教理史 세종문화사, 서울, 1975.
33. 쾨너드 著, 任 興彬 譯, 世界와 教會의 至上課業, 크니스찬 헤럴드사, 서울, 1970.
34. 서 명원 著, 이 승익 譯, 韓國教會成長史,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1975.
35. 솔트우, T. S. 著, 中 泓植 譯, 現代宣敎戰略, 크리스찬헤럴드사, 서울, 1972.
36. 웨퍼, 프란시스 著, 김 개전 譯, 20세기말의 교회, 생명의 말씀사, 서울, 1974.
37. 아브레흐트, 송 著, 鄭 贊恩 譯, 教會와 急變하는 社會,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1974.
38. 덴드슨, 케일드, H. 編, 朴 根道 譯, 宣敎神學序說,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1975.
39. 이트리, C. E. 著, 서진황 譯, 기본전도학, 김례희출판사, 서울, 1976.
40. Walker, Willsston 著, 유 형기 譯, 기독교회사, 한국기독교 문화분, 서울, 1974.
41. 윌슨·제임스 著, 이 동원 譯, 전도전략원회, 생명의 말씀사, 서울, 1973.
42. 李 根三, 칸빈 칼빈주의, 고신대출판부 부산, 1976.
43. 李 相容 編, 韓國基督教要覽, 제1권, 한국기독교사료모집회, 1962.
44. 이 중기 편, 김 의환 감수, 교회사, 세종문화사, 서울, 1975.
45. 칼, 위슬트프 著, 趙 錫萬 譯, 現代神學小史 一麥社, 1976.
46. 케네디, 제임스 著, 이 동원 譯, 현대전도, 생명의 말씀사, 서울, 1974.
47. 코호 著, 박 빌립 譯,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세종문화사, 서울, 1970.
48. 난 부선 著, 증거가 되리라, 한국개혁주의신학협회, 부산, 1973.
49. 호오딘, 윌리엄 著, 김 관식 譯, 新正統主義神學, 大韓基督教書會, 서울, 1968.
50. 호오딘, 윌리엄 著, 이 정옥 譯, 프로테스탄드 神學概要, 大韓基督教書會, 서울, 1974.
51. 黃 聖秀 著, 教會와 國家, 신앙애사, 서울, 1975.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